사계절 무한고의 창의적인 골프코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힘핑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광주 - 동함평IC 구간 왕복 동행료 환불
(탈달 동함평IC 영수증 프론트 제시)
무천시 9홀 이후 홀별요금정산제 실시
예약: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이형택 우승

일본 소에다 고 2-0 제압

ATP 게이오챌린저 단식

한국 테니스의 간판 이형택(32·삼성증권·사진)이 남자프로테니스(ATP) 게이오챌린저대회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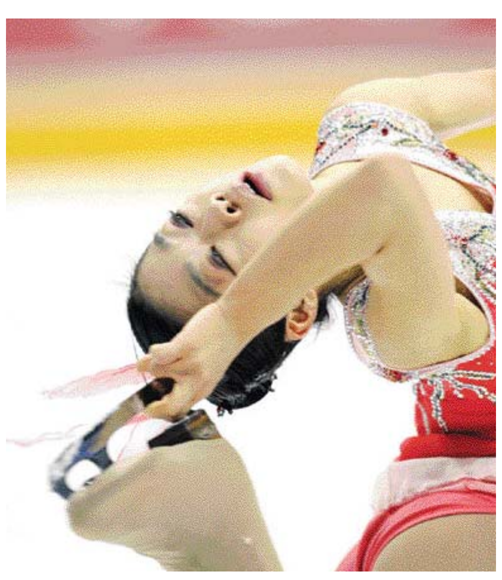
세계 랭킹 134위 이형택은 23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전에서 소에다 고(128위·일본)를 2-0(7-5 6-3)으로 물리치고 우승 상금 5천달러와 랭킹 포인트 55점을 획득했다.

지금까지 두 번 맞붙어 모두 꺾었던 소에다를 만난 이형택은 1세트를 듀스 끝에 이긴 여세를 몰아 2세트를 6-3으로 가볍게 마무리했다.

10월 서울 올림픽코트에서 열렸던 삼성증권배 이후 시즌 두 번째 챌린저대회 타이틀을 따낸 이형택은 24일 발표될 새 랭킹에서 120위 안팎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택은 24일부터 일본 도요타에서 열리는 챌린저대회인 던롭 월드챌린지에 출전해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이형택의 1회전 상대는 알렉산더 슬라빈스키(268위·영국)로 정해졌다. /연합뉴스



김나영 여자 싱글 9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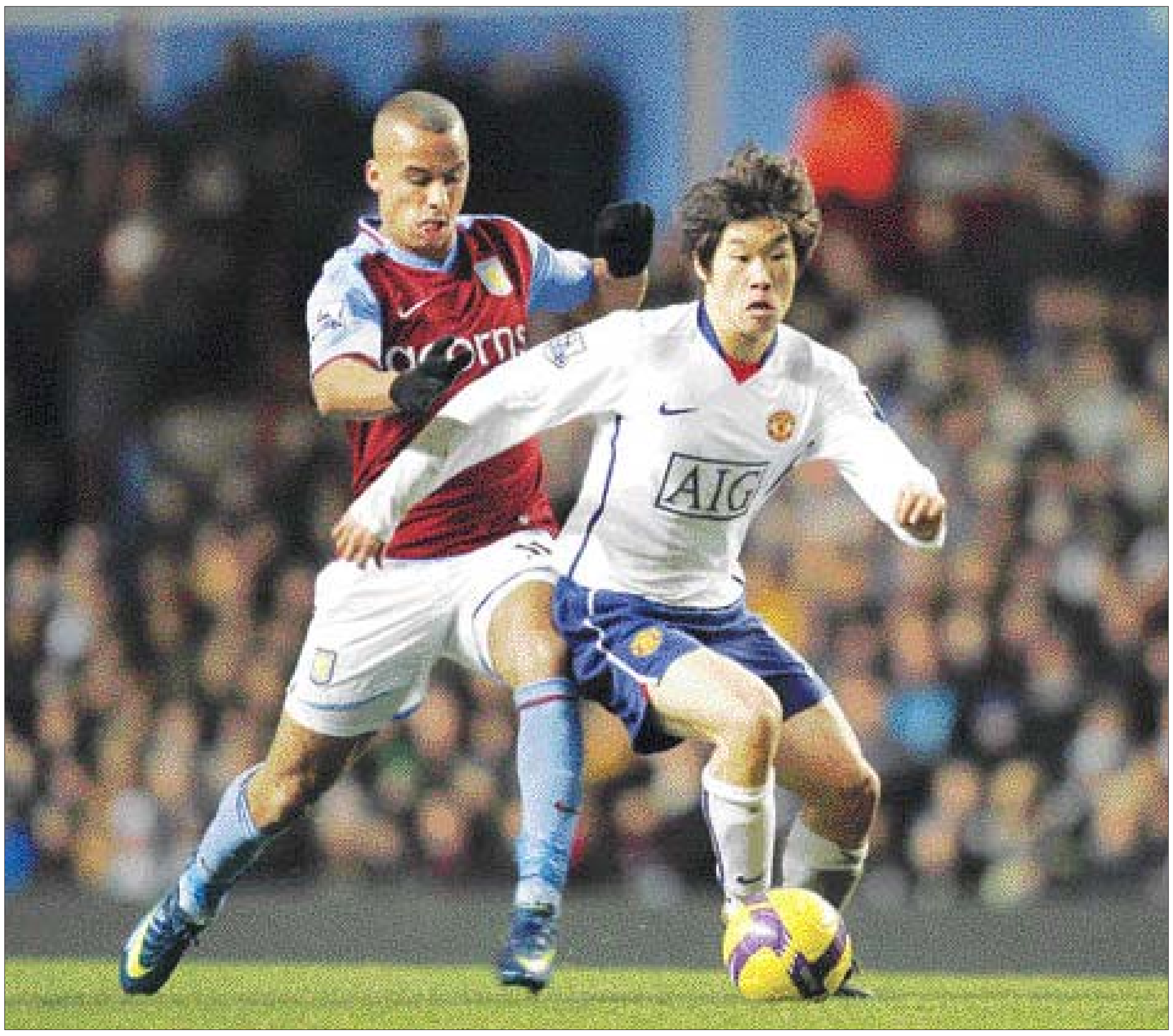
ISU 시니어 피겨 그랑프리 5차

국내 랭킹 2위 김나영(18·연수여고·사진)이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5차 대회 '컵 오브 러시아'에서 여자 싱글 종합 9위를 차지했다.

김나영은 22일(한국시간) 오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계속된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82.69점을 받아 전날 쇼트프로그램(43.26점) 점수를 합쳐 총점 125.95점으로 '꼴찌'에 머문 니나 패트쉬코바(러시아·125.61점)를 0.34점 차로 앞서며 최하위를 면했다.

지난 3월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은메달을 차지한 카롤리나 코스트너(이탈리아)는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2위를 차지했지만 이날 1위를 차지하면서 총점 170.72점으로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김나영은 오는 27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치러지는 그랑프리 6차 대회 'NHK 트로피'에서 명예회복에 나선다. /연합뉴스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23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 빌라파크에서 열린 애스턴 빌라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로 출장해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고 드리블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이영표 역시 '강철 체력'

지난 20일 사우디전 후 팀복귀

선발로 출전…풀타임 소화

지성, 아쉽게 득점 기회 놓쳐

'산소 탱크'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과 베테랑 수비수 이영표(31·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주말에 치러진 소속팀 경기에서 다시 한 번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과시했다.

박지성은 23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의 빌라파크에서 열린 애스턴 빌라와 2008~2009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원정경기에 선발로 출장해 전·후반 90분을 모두 뛰었고 이영표는 하루 앞선 22일 카를스루에SC와 독일 분데스리가 1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지난 20일 한국 대표팀 일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차전에서 2-0 승리를 이끈 뒤 소속팀에 복귀한 지 이틀 만에 차례로 출격해 모두 풀타임 활약을 펼친 것이다.

박지성은 사우디전에서 주장을 맡아 이근호(대구)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고 이영표는 왼쪽 풀백으로 2-0 승리에 힘을 보탰다.

연속 경기 출장과 장거리 비행에 따른 피로도 잊은 '강철 체력'이다.

박지성은 애스턴 빌라전을 건너뛰고 체력을 비축해 26일 비야레알(스페인)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선발 출격 명령을 받았다.

애스턴 빌라전에서 강한 면모를 보인 데다 A매치 참가 직후에도 소속팀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박지성에 대한 퍼거슨 감독의 신뢰를 반영한 것이다.

카를로스 테베스-웨인 루니 투톱에 좌우 날개로 배치된 라이언 긱스-호날두를 받치는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나선 박지성의 선발 출격은 지난 9일 아스널과 정규리그 11라운드, 12일 퀸스파크 레인저스와 칼링컵, 16강전, 16일 스토크시티와 정규리그 12라운드에 이은 4경기 연속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월드컵 최종예선 3차전까지 포함하면 무려 5경기 연속이다.

박지성은 오른쪽은 물론 중앙을 넘나들고 수비에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쉴 새 없이 그라운드를 누볐다.

영국 스포츠전문 채널인 스카이스포츠는 '항상 그렇듯이 영리하고 부지런했다'는 평가와 함께 평점 8점을 줬다.

전반 38분과 39분 잇단 득점 기회를 놓친 게 아쉬웠지만 두 차례 프리킥을 유도하고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맨유는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해 결국 0-0으로 비겼다.

이영표도 박지성 못지않다. 사흘 전 사우디와 월드컵 최종예선 3차전에서 센추리클럽(A매치 100경기 이상 출전)에 가입했던 이영표는 전날 카를스루에전 출격으로 연속 경기 출장을 11경기로 늘렸다. A매치까지 포함하면 12경기 연속이다. 도르트문트는 전반 20분 모하메드 지단의 결승골로 1-0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전북 루이스 결승골…준PO 합류

프로축구 6강 PO…성남에 2-1 역전승

뒷심 대결이 삼성 하우젠 K-리그 2008 준플레이오프 향방을 갈랐다.

전북 현대가 23일 K리그 6강 플레이오프에서 연장전 터진 루이스의 결승골에 힘입어 성남 일화를 2-1로 누르고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앞선 22일 울산 현대도 승부차기 끝에 포항 스틸러스를 누르고 준플레이오프 티켓을 거머쥐면서 '현대가(家)'의 축구 맞대결이 치러지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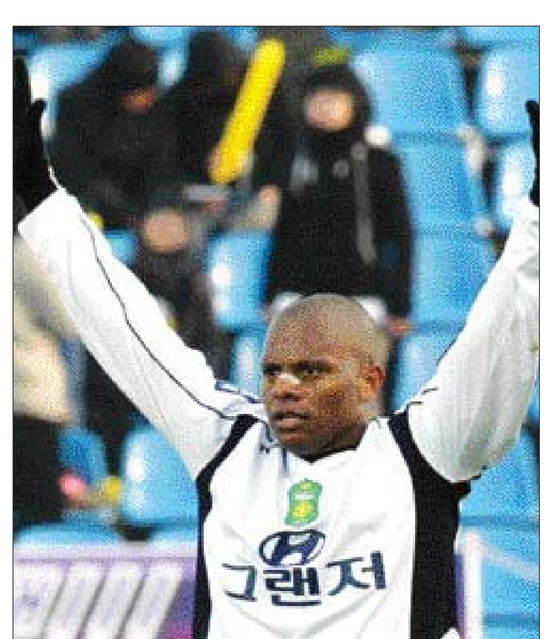
전북은 23일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성남과의 경기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연장 9분에 나온 루이스의 결승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전반 29분 성남 두두에게 선취골을 내주며 0-1로 이끌려 가던 전북은 후반 교체 투입된 '프리킥의 달인' 김형범마저 부상으로 물러나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 하지만 후반 30분 최태욱의 동점골을 앞세운 전북은 1-1로 경기를 마치며 승부를 연장전까지 몰고 갔다.

연장들어 양팀은 치열한 공세를 펼쳤으나 승리의 여신은 전북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장전반 9분 루이스가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던 다이치의 패스를 받아 성남의 골문을 흔들며 2-1 역전에 성공했다. 전북 골키퍼 권순태는 연장 후반 13분 프리킥 상황에서 김상식의 오른발 슛을 막아내며 팀 승리를 지켜냈다.

울산은 지난 22일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열린 포항과의 6강 플레이오프에서 0-0으로 경기를 마친 뒤 승부차기에서 4-2로 승리했다.

뒷심 대결에서 생존한 전북과 울산은 오는 26일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3일 성남탄천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프로축구 삼성하우젠 K-리그 2008 6강 플레이오프 전북 현대-성남 일화의 경기에서 연장 전반 2-1 역전 결승골을 성공시킨 전북 루이스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2연승 질주

카자흐스탄 32-29 제압

아시아선수권 女핸드볼

한국 여자핸드볼이 카자흐스탄을 꺾고 제12회 아시아핸드볼연맹(AHF) 아시아선수권대회 2연승을 달렸다.

이재영(대구시청)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22일 밤(이하 한국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카자흐스탄을 32-29, 3점 차로 물리쳤다고 선수단이 23일 알려왔다.

21일 우즈베키스탄과 1차전에서 57-26으로 대승을 거둔 한국은 이로써 조 1, 2위가 오르는 4강 토너먼트 진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출신 심판 커플의 석연찮은 판정이 이어지며 피봇 김차연(히포방크)이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당하는 등 고전한 한국은 전반을 16-15로 간신히 앞섰다.

후반 한국은 베이징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낼 당시 막내였던 무안 백제고 출신의 센터백 김온아(벽산건설)가 혼자 13골을 터트리는 맹활약에 힘입어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승리했다.

한국은 24일 이란과 3차전에 이어 25일 일본과 A조 최종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축구국가대표 염기훈

'자랑스러운 호남대인'

국가대표 축구선수 염기훈(25·울산·사진)이 모교인 호남대에서 '자랑스러운 호남대인'으로 선정됐다.

호남대는 22일 개교 30주년 기념 총동창회 한마당 축제에서 염 선수를 자랑스러운 호남대인으로 선정,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호남대는 염 선수가 "불굴의 투지와 노력으로 K리그와 국가대표 선수 활동을 통해 뛰어난 기량을 펼쳐 대학의 명예와 위상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염 선수는 강경상고와 호남대를 거쳐 현재 K리그 울산 현대에서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으며 2006년 전북 현대에 입단할 때만 해도 무명이었지만 이후 기량이 급성장하며 국가대표로 뽑혔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번개 스프린터' 우사인 볼트

"2011년 대구 육상선수권 참가"

'번개 스프린터' 우사인 볼트(22·자메이카)가 2011년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볼트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주최하는 '올해의 선수상' 시상식 성격의 갈라쇼를 하루 앞두고 23일(한국시간) 모나코 몬테카를로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년 후 대구를 방문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베이징올림픽 남자 육상 100m(9초69)와 200m(19초30), 400m(37초10) 계주에서 모두 세계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목에 건 볼트는 역시 베이징올림픽에서 10,000m와 5,000m를 동시에 석권한 케네니사 베켈레(26·에티오피아), 110m 허들 세계기록 보유자(12초87)이자 베이징올림픽 우승자 다이론 로블레스(21·쿠바)와 함께 IAAF 올해의 선수 남자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